

‘女씨름 최강’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설날장사대회서 쾌거

단체전 우승...체급전에서 국화급 엄하진·매화급 이연우 2체급 석권

“쾌적한 훈련 환경 조성 노력 군·선수들 구슬땀 좋은 결과 이끌어 내”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구례군청 단체전 우승과 매화·국화급 2체급을 석권하며 명실공히 여자씨름의 최강자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올해는 2팀이 새롭게 창단하여 총 7팀이 경쟁하면서 어느때보다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 가운데 4종목 중 3종목을 석권하는 저력을 보이며 그동안 흘린 구슬땀의 진가를 발휘하였다.

거제시청을 꺾고 단체전 결승에 오른 구례군청은 결승전 상대인 화성시청을 상대로 일명 빅3로 불리는 이연우, 양윤서, 엄하진 장사가 승리하며 3대1 전적으로 우승을 차지하여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서 치러진 매화급에서는 구례

군청 소속 선수끼리 맞붙은 결과 이연우 선수가 양윤서 선수를 2대0으로 꺾으며 2020년 마지막 대회인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 이어 연속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업을 토론했다.

국화급에서는 임수정(영동군청) 선수를 준결승에서 물리치고 이번 대회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오른 김다혜(안산시청) 선수를 맞아 엄하진(구례군청) 선수는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돌배지기를 잘 방어하며 뒷걸이 및 잡채기로 승리하면서 국화급에서 신승강자의 모습을 보여 줬으며 2020년 2개 대회 우승한 상승세를 이어 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 환경 조성에 노력한 군과 선수들의 구슬땀이 잘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 새로운 훈련장 1동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에 냉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젊고 유망한 선수 2명을 새롭게 영입하며 팀전력을 튼튼하게 다져왔다.

또한 구례군청 씨름단은 “첫대회인 설날장사를 시작으로 2021년 치러질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여자씨름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이제는 텍사스맨’ 양현종, 새 등번호는 ‘68’



텍사스 레인저스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양현종(33)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스프링캠프를 통해 메이저리그(MLB) 입성을 타진하는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이 68번을 달고 도전을 시작한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17일(한국시간) 구단 트위터를 통해 스프링캠프 참가 선수들의 등번호를 공개했다.

10명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양현종에게는 68번이 부여됐다. 국내에서 달고 뛰던 37번과 54번은 샘 가비글리오와 카일 코디에게 돌아갔다.

양현종의 이름 옆에는 초청 선수를 뜻하는 별표가 붙었다.

KBO리그 대표 좌완 에이스인 양현종은 올 겨울 텍사스와 1년짜리 계약

을 맺었다. 자유계약선수(FA) 선수 신분을 취득한 양현종은 거액이 보장된 잔류 대신 오랫동안 마음 속에 담아뒀던 미국행을 선택했다.

MLB 입성이 보장되지 않은 마이너 리그 계약이기에 스프링캠프가 중요하다.

양현종은 이제는 친정팀이 된 KIA의 배려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몸 만들기에 한창이다. 선수단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팀 훈련이 끝나면 오후 3시 이후 개인 훈련 중이다.

양현종은 비자 발급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텍사스의 스프링캠프는 18일 시작한다.

뉴스스

류현진, MLB 선수랭킹 39위...14계단 상승

포지션 무관 현존 최고의 선수 100명 선정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MLB) 최고 수준의 가치를 지닌 선수로 또 한 번 인정 받았다.

류현진은 17일(한국시간) MLB 네트워드가 뽑은 선수랭킹 톱100에서 39위에 올랐다.

MLB 네트워킹 선정 선수 랭킹은 포지션과 무관하게 현존하는 최고

의 선수 100명을 추리는 것이다. 39위에 올랐다는 것은 최고들만 모인 MLB 내에서도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해당 조사에서 53위를 차지했던 류현진은 올해 14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새 시즌 그를 향한 기대감을 입증했다.

류현진의 앞뒤로는 LA 다저스 시

절 함께 최강 선발진을 구축했던 클레이튼 커쇼(38위)와 워커 불라이시 LA 다저스·40위)가 자리했다.

LA 다저스를 떠나 토론토로 4년 800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을 체결한 류현진은 이적 첫 해인 지난 시즌 5승2패 평균자책점 2.69라는 수준급 성적을 냈다.

확실한 1선발을 얻은 토론토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고, 몸값을 톡톡히 해낸 류현진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올해도 팀의 1선발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4월2일로 예정된 뉴욕 양키스와의 개막전에 예상대로 선발 등판할 경우 ‘3억 달러 사나이’ 게릿 콜(뉴욕 양키스)과의 맞대결도 기대할만 하다.

김하성의 동료가 된 일본인 투수 다릿슈 유(이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30위에 자리했다. 21위는 양키스 외야수 애런 저지에게 돌아갔다.

뉴스스

“샌디에이고, 역대 최고 구성인데...” MLB 파워랭킹 2위

KBO리그 최고 유격수 김하성의 메이저리그(MLB)이 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새 시즌 주목할 만한 팀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17일(한국시간) 2021시즌 MLB 파워랭킹을 발표했다.

샌디에이고는 전체 30개팀 중 2

위에 랭크됐다.

겨우내 공격적인 영입 덕분이다. 샌디에이고는 다르빗슈 유와 블레이크 스넬을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선발진을 강화했고, 포스팅을 통해 김하성을 영입하면서 내야진의 깊이를 더 했다. 여기에 우완 투수 마이크 멜란슨으로 불펜까지 살찌웠다.

SI는 “샌디에이고는 구단 역사상 가장 재능있는 팀이었다”고 호평했다.

샌디에이고가 임장에서 하나 아쉬운 점은 파워랭킹에서 자신들을 제친 유일한 팀이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소속이라는 것이다. SI는 “안타깝게도 샌디에이고는 그들의 지구에서 가장 좋은 팀은 아니다”고 적었다.

벤틀호 3월 월드컵 예선 또 연기되거나... “답변 기다려”

AFC에 국내 ‘코로나 상황’ 보고 3월 2차예선 취소시 6월 ‘4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3월에도 정상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내 방역 조치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A매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AFC의 요청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AFC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고 16일 밝혔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은 총 4개국 5개 팀씩 8개조로

나뉘어 치른다. 지난 2019년 9월 처음 2차 예선이 시작됐고 국가별로 4~5 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1월 이후 예선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3월로 연기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10월과 11월도 각각 연기됐지만, 결국 취소됐다.

해를 넘겨 3월 월드컵 예선 일정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별 입국시 최대 2주의 격리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원정팀의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파울루 벤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H조에서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한 조다. 한국(2승2무·승점 8·골득실 +10)은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3승2패·승점 9·골득실 +3)에 이어

2위다.

한국은 3월25일 홈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한 뒤 30일 스리랑카 원정을 떠난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까지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아직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으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자대표팀도 실무자 미팅까지 잡아 놓고 연기했었다”면서 “지금 분위기가르면 3월 개최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플레이오프(PO)도 이달 치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4월도 또다시 미뤄졌다.

3월 월드컵 예선이 또 취소될 경우 6월 A매치 기간(5월31일~6월15일) 남은 2차 예선 4경기를 모두 치러야 강행군이 예고돼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최종예선 일정상 2차 예선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국가 간 격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

‘이재영·이다영 이탈 컷다’ 흥국생명, 4연패 수모

김연경 12점으로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 득점 지원 부족



16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 세트스코어 3대0으로 패한 흥국생명 김연경과 선수들이 코트를 나서고 있다

이재영과 이다영이 이탈한 흥국생명이 시즌 최다인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흥국생명은 1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과의 홈경기에서 0-3(21-25 10-25 10-25)으로 완패했다.

총격의 4연패를 당한 흥국생명은 시즌 17승 7패(승점 50)를 기록했다. 흥국생명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 GS칼텍스(15승 9패·승점 45)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흥국생명 김연경(12점)이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특히, 대체 외국인 선수 브루나의

공백이 뼈아팠다. 브루나는 대부분 코트 밖에서 있었고, 1득점에 그쳤다. 이재영을 대신해 레프트로 들어온 김미연도 8득점에 그쳤다.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결정적이었다.

흥국생명은 주전 레프트 이재영, 세트 이다영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졌고,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민배구협회 역시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2연패에서 탈출한 4위 기업은행은 시즌 12승 13패(승점 35)를 기록해 3위 한국도농공사(11승 13패·승점 36)와의 격차를 좁혔다.

기업은행 외국인 선수 라자레바(30점)와 김주향(13점)이 승리를 이끌었다.

흥국생명은 시종일관 무기력했다. 흥국생명은 1세트 초반부터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연이은 실점을 했다. 기업은행 라자레바는 상대 조직력이 흔들리자, 고공폭격으로 차분하게 점수차를 벌였다.

흥국생명은 1세트 5-18로 끌려가며 불안감을 보이다가, 김연경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맹추격을 했다. 그러나 21-24에서 라자레바에게 시간차 공격을 내주고 1세트를 내줬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흥국생명은 2세트에서 불과 10점만 기록하고 세트를 내줬다. 믿었던 김연경 역시 2세트에서 2득점에 불과했다.

흥국생명은 3세트에서도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3-14로 점수차가 벌어져 사실상 경기를 포기했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경기 중 선수들에게 서브리시브를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수비력은 살아나지 않았다.

“최강”이라고 불렸던 흥국생명은 2경기 연속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해 체면을 구겼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34점차)을 세웠다. 이날 흥국생명은 41점을 올렸고, 75점을 내줬다.

뉴스스